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공원, 공연. 세 가지 ‘고엔’으로 젊음을 되찾다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계(拜啓) 김대중 선배
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칼럼] ‘서울
⑧ 대학생들
한

🕒 June 20, 2013

👍 좋아요 2

강연, 공원, 공연. 한국어 발음은 제각각인데 어째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이 ‘고엔’이다. 지난주는 그런 ‘고엔’의 연속으로 기분이 크게 ‘업된’ 한 주였다.

먼저 내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강연한 이야기로 물꼬를 트자. 한국에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일본 우경화론’에 대해, 잘 짚은 부분과 빗나간 부분, 그리고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 항상 생각하던 것들을 이야기한 강연이다.

내가 했지만 참 무모한 한국어 도전이었는데, 인간의 뇌는 익숙한 일의 반복을 싫어하며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는 것을 최근 한국어 교과서에서 알게 됐다. 그런 자극들로 뇌는 활성화되며 젊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노화방지책입니다”라는 서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뇌가 폭발이라도 하면 큰일이라 질의 응답은 일본어로 사정을 좀 봐 주십사 했다.

다들 열심히 들어 주고 큰 박수를 받은 것은 기뻐지만, 깜짝 놀란 질문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 상륙은 당연하다 말하며 ‘그 섬은 한국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외부에서 오신 연세 든 분이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요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되물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지키다는 건지요? 자위대가 공격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지만 민족감정을 서로 자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강의 주제가 그것이니만큼 학생들도 조금 어이없어했다.

자, 강연을 마친 그날 밤은 친한 학생들과 서울 유행의 발원지라 불리는 홍대 앞으로 몰려나갔다. 금요일 밤이라 떠들썩, 또 떠들썩하도다. 홍대 거리 중심에 자리한 ‘홍대놀이터’에서는 두 개의 공연이 실력을 겨루고 있었다. 한 팀은 신나는 리듬을 연주하는 밴드로 탭댄스를 선보였고 다른 한 팀은 3개의 봉을 사용한 격렬한 폴댄스 그룹이었는데, 막상막하의 열연이었다. 세련된 가게가 즐비한 이 거리에는 그 밖에도 거리공연이 많아 싫증날 일이 없다. 서울, 도쿄 하라주쿠, 뉴욕을 섞은 듯한 그 감각에 또 한 번 큰 자극을 받았다.

●일한합작 연극에 감동

그리고 토요일은 학생 커플에게 같이 가자 권해 예술의 전당으로 갔다. 크고 작은 극장들이 늘어난 장대함에 놀라며, 보러 간 것은 ‘아시아의 온천’이라는 연극이



홍대 앞 놀이터에서 펼쳐진 공



More AAA

Facebook

Twitter

다. 일본과 한국의 합작으로 두 나라 배우가 함께 연기한 이색적인 작품이다.

무대는 아름답고도 가난한 아시아 어딘가의 섬. 그곳에 온천이 솟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섬의 토지를 둘러싼 권리 쟁탈전, 토착 신앙과 오래된 관습, 섬을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외지인, 그 동생과 섬 지도자의 딸을 둘러싼 사랑이야기, 그리고 비극……. 섬사람은 한국어를, 외지인은 일본어(오사카와 동북지방 사투리가 뒤섞인)를 사용해 관객은 자막으로 이해하는데, 개그 요소도 풍부해 큰 웃음과 눈물을 함께 주었다.

섬 이야기인 만큼 어딘가의 영토마찰을 연상하게 되지만, 물론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섬사람도 외지인도 저마다 고민과 애환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그려진 점이 공감을 불렀고, 무엇보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 그토록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객석의 박수가 끊임없이 울렸고, 뇌도 마음도 깊이 자극받은 나는 틀림없이 또 한 번 젊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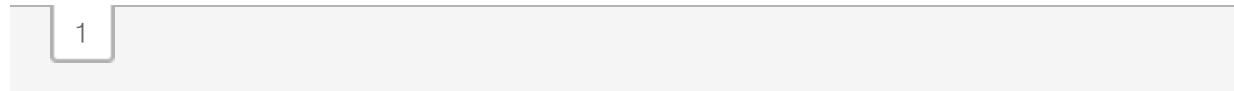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3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권오기 씨와의 대담)등이 있다.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고엔’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든 까, 신촌에서의 하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툰 외국인이 낯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 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선을 흠어 태극기를 연상하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 (拜啓) 김대중 선배

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15)이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1924~2015)인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젠가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쓰던 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⑤국제스포 풍부한 우리 반

May 16, 2013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10일, 오바마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훌륭히 연설도 했으니, 만만치 않을 만, 대통령 대변인이 워싱턴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